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9월 15일(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성 주류화 동향 통해, 우리사회 성 주류화 전략의 발전방향 모색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 주요 선진국 성 주류화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여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9년 9월 15일(화)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mailto:info@kwdimail.re.kr))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전문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http://www.kwdi.re.kr))은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 일시 : 2009. 9. 17. (목) 09:30 ~ 18: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관 : 본원 성별영향평가센터
- 한-영 동시통역



**※ 해외초청 발제자 미디어 취재 지원 안내**

-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성 주류화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 참석차 내한하는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했 예정입니다.
-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내한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홍보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 바랍니다.

홍보담당 황애리(3156-729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http://www.kwdi.re.kr))은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크게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제 1세션: 성 주류화, 적극적 조치와 함께 갈 수 있는가]에서는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 그리고 다양성 : 성평등 정책의 정치와 의미’, ‘성 주류화의 접근, 도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 [제2세션: 성 주류화, 어디로 가야하나]에서는 ‘성

평등 정책 50년의 성과와 과제 : 유럽연합(EU)의 사례',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주체들의 역할 : 독일의 사례',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 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 관계자, 여성정책 전문가, 연구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에 열린 제1차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전략”의 후속회의로써, 주요 선진국의 성 주류화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의 성 주류화 전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성 주류화란?**

성 주류화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경험을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도구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등이다.

- 이날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이후 각국에

확산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 성 주류화는 성 평등과 여성발전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 주류화를 이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를 실시한데 이어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후에 보다 발전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오류 등을 보완하고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제도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끝으로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성 주류화 도입 이후 재검토되어야 할 개념적 논의와 실천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기위해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 자리를 통해 다른 주요국가의 성 주류화 실행사례에서 우리나라 제도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 주류화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 주류화 연구실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2008년도부터 2개년도 연구 사업을 수행

중이다. 2009년에도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정착 및 세계적 위상 강화'를 기관 주요 연구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에 매진하고 있다.

\* 별첨 1. 발제자 프로필

별첨 2. 발표 초록

별첨 3. 프로그램순서

별첨 4. 발표자료 전문

## 별첨 1. 발제자 프로필

### 1. 캐롤 바치 (Carol Bacchi, 호주)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the Univ. of Adelaide)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정치이론, 페미니스트 정치이론, 적극적 조치,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 성 주류화, health inequalities 관련 보건정책 등임. 현재 집필중인 저서로는 「Mainstreaming Politics: Gendering Practices and Feminist Theory」가 있음.

### 2. 로나크 자한 (Rounaq Jahan, 미국)

현재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New York) 국제학과 교수로 미국과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있음. 방글라데시에서는 Dhaka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한바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UN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에서 여성 관련 개발프로그램 분야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였고, 스위스 국제노동사무국(ILO)에서는 지역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장(head)을 역임한 바 있음.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Women for Women”을 설립하고, Human Rights Watch: Asia의 자문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 3. 엘리슨 우드워드 (Alison E. Woodward, 벨기에)

벨기에 브뤼셀의 브리제 대학교(Vrije Universiteit Brussel) 교수로 재직 중임. 동 대학의 젠더 및 다양성 연구센터(Centre for Gender Studies and Diversity Research)에서 co-director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연구소(the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에서 선임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연구 분야는 EU 거버넌스, 공공정책 및 조직 비교연구로 특히 시

민사회, 다양성(diversity), 동등기회(equal opportunities) 관련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는 젠더관련 연구로 EU의 초국적 사회운동(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에 관한 연구가 있음.

#### 4. 마리온 보커 (Marion Böker, 독일)

독일의 Consultancy on Human Rights and Gender Issues Initiative for Gender Justice in the Budget of Berlin 대표로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 관련 활동가이자 연구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1998년에는 여성 이슈 관련 녹색당 연방 공무원(Green Party's Federal Officer on Women's Issues)으로 활동하였고, 이때 민간전문가로서 Equal Opportunity Act 기안 작업에도 참여하였음.

#### 5. 김경희(Kyung-Hee Kim, 한국)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입법정보연구관(여성담당)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일한 경험이 있음. 또한 여성부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여성연구」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였음. 관심분야는 성별영향평가, 적극적 조치, 성 주류화, 지역발전정책과 여성 등임. 현재 수행중인 연구로는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별첨 2. 발표 초록**

### **제1세션 주제 1**

#### **Gender mainstreaming,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 **Politics and meaning in gender equality policies**

####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 그리고 다양성**

#### **: 성평등 정책의 정치와 의미**

**캐롤 바치 Carol Bacchi (호주, Adelaide University)**

본 논문은 '성 주류화', '적극적 조치'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정치적 의미를 WPR접근법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WPR)을 통해 분석하고, 각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성 주류화', '적극적 조치' 그리고 '다양성'의 개념들이 논쟁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성 평등정책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 주요 개념에 부여된 의미에 더 많은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검토를 위한 유용한 방법론으로 WPR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WPR접근은 '정책이란 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정책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즉 무엇이 문제로 보이는가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의 표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성 주류화', '적극적 조치' 그리고 '다양성'의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고, 어떤 배경에서 성 주류화가 적극적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안되는지, 어떻게 여성들 간 '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의 축소로 이어지는지 등의 질문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참      고**      >

**<용어 설명>**

**1.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여성정책 전략의 하나이며, 여성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개념이다. 성 주류화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여성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① 여성의 주류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짐
- ② 성 인지적 관점의 주류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정책의 내용과 과정, 결과가 성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③ 주류의 전환: 조직의 성별 구성이 변화되고,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는 것으로 조직구조와 문화,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과 연결됨

**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사회구조나 구성원들의 태도, 행동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시정할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할당제, 목표제, 가산점제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3. 다양성의 주류화(diversity mainstreaming)**

인종, 성, 동성애자, 종교, 나이, 그리고 장애와 함께 평등을 증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 **제1세션 주제 2**

### **APPROACH, TOOLS AND DIRECTIONS FOR IMPLEMENTING GENDER MAINSTREAMING**

#### **성 주류화의 접근, 도구, 방향**

**로나크 자한 Rounaq Jahan (미국, Columbia University)**

본 논문은 성 주류화 실행에 있어 제도적 장치의 최근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성 주류화 도구에 대한 잠재력과 한계를 종합분석하고 있다.

▶성 주류화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중궤도접근(dual track approach; 즉 모든 정책, 프로그램에서 젠더 이슈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시정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고,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행정 구조적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과거 70, 80년대 성 평등 및 여성권한 증진을 위한 제도적 조직들이 중앙정부 조직 안에 설립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주(state), 시(municipal) 등 지방정부 조직 안에도 설립되고,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업부 조직에도, 독립부서 형식의 메커니즘 외에 부서 간/부처 간 구조로도, 정부관리 하에 있지만 일정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도 설립되는 등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이는 성 주류화 활동과 기능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성 주류화 도구인 성 분석, 브리핑 노트, 성인지 예산/성인지 감사, 성별영향평가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지식 관리와 공유 등과 같은 도구들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 참 고 >

### <용어 설명>

#### 1.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여성정책 전략의 하나이며, 여성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개념이다. 성 주류화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여성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① 여성의 주류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짐
- ② 성 인지적 관점의 주류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정책의 내용과 과정, 결과가 성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③ 주류의 전환: 조직의 성별 구성이 변화되고,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는 것으로 조직구조와 문화,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과 연결됨

#### 2. 성 분석(gender analysis)

제도나 정책,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성 분석은 성(sex)에 따라 자원과 노동이 어떻게 배분되며 평가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요한다. 성 분석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행해져야 한다.

#### 3.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정부의 예산 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특별 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지 예산은 성 평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4.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제도나 정책, 사업계획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이 성 평등하게 기획·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성 분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에서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세션 주제 1

### 성평등 정책 50년의 성과와 과제 : 유럽연합(EU)의 사례

앨리슨 우드워드 Alison E. Woodward (벨기에, Vrije University)

본 논문은 지난 50년 동안 3단계 (▶법률적 평등조치(1957-1976년), ▶적극적 조치(1975-1992),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 주류화 정책)에 걸쳐 전개되어온 성 평등 정책의 도전의 역사를 제시하고,

이 세 가지 전략이 등장시기별로 서로 단절되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점증적으로 발전해온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다양한 젠더 체계와 역사, 정책 환경을 가진 국가들로 각 국가에서 성 평등 정책 집행 시 이 세 가지 전략이 어떻게 해석되고 얼마나 조화롭게 활용되어 왔는지에 따라 성 평등 정책 집행 역량이 다르고 미래를 향한 시도들이 상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적 정치체가 정책을 통해 젠더관계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묻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들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50년간 성 평등 정책을 실행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험이 어떻게 이전되고 공유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다양성 문제 등 앞으로의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 참 고 >

##### <용어 설명>

##### 1. 세 가지 전략

- ① 법률적 평등조치 : 불평등한 법률적 기회와 적용(예: 여성의 참정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성불평등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
- ② 적극적 조치 : 실질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시정할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
- ③ 성 주류화 :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성불평등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책 과정의 재구조화 요구.

## 제2세션 주제 2

###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주체들의 역할 : 독일의 사례

마리온 뵉커 Marion Böker (독일 Consultancy on Human Rights and Gender Issues Initiative for  
Gender Justice in the Budget of Berlin)

본 논문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각 주체들(GO/NGO/전문가 등)의 역할과 시사점을 조명하고, 더 나아가 상의하달(top-down)적인 제도 셋팅과 함께 NGO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지원이 성 주류화 실행에 있어 큰 성공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성 주류화 실행에 있어 첫 번째 주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 정치적 결정(의지)이 성 주류화 실행에 있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 주류화 실행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통합, 성 주류화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평가, 성 주류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조율 등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정치후보자, 의원 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성 주류화 실행 및 확산에 있어 주요 원동력을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역할에서 찾고 있다. 시민단체는 성 주류화 실행 외에 확산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여성 임파워먼트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시민단체의 경험과 기여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GO와 NGO가 함께 배우고 성인지적 관점이 주류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방법, 모든 주체들이 win-win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 제2세션 주제 3

###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성 주류화는 지난 10년에 걸쳐 부상한 성 평등 전략의 핵심으로 1995년 UN이 행동강령으로 채택하면서 각국에 확산되었다.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성 주류화의 대표적인 도구로써, 한국은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5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정부 주도로 실행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참여기관의 확대와 분석 대상과제의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와 그 성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추진현황과 이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성 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천적 함의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성비 균형 맞추기가 아니다. 성 중립적(gender-neutral)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성 차별적일 수 있는 제도를 분석하고 성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 차별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료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 주류화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성 평등이 조직문화와 사회 전반에 통합되도록 하는 전환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의 실행과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과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전문가, 여성단체가 결합하는 실천 주체의 통합적 연대가 필요하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 별첨 3. 프로그램순서

09:30 - 10:00	등 록		
10:00 - 10:20	개회식 (사 회: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 개회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10:20 - 12:00	제1세션	성 주류화, 적극적 조치와 함께 갈 수 있는가	
	사회자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주류화연구실 실장)	
		주제	주제발표자
	주제 1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 그리고 다양성 : 성평등 정책의 정치와 의미	캐롤 바치 Carol Bacchi (호주, Adelaide University)
	주제 2	성 주류화의 접근, 도구, 방향	로나크 자한 Rounaq Jahan (미국, Columbia University)
	지정토론	허라금(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앨리슨 우드워드 Alison E. Woodward(벨기에, Vrije University)	
12:00 - 13:30	오 찬		
13:30 - 15:00	제2세션	성 주류화, 어디로 가야하나	
	사회자	한정원(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	
		주제	주제발표자
	주제 1	성평등 정책 50년의 성과와 과제 : 유럽연합(EU)의 사례	앨리슨 우드워드 Alison E. Woodward (벨기에, Vrije University)
	주제 2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주체들의 역할 : 독일의 사례	마리온 뵈커 Marion Böker (독일, Consultancy on Human Rights and Gender Issues Initiative for Gender Justice in the Budget of Berlin)
	주제 3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5:00 - 15:45	지정토론	1) 캐롤 바치 Carol Bacchi(호주, Adelaide University)	
		2) 차인순(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3) 정봉협(여성부 여성정책국장)	
15:45 - 16:00	휴 식		
16:00 - 17:00	제3세션	종합토론	
	사회자	김양희(젠더 앤 리더십 대표)	
17:00 - 19:00	폐회사 및 리셉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http://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